



시련을 기회로

김종길 / 본회 비상근 이사
(주)삼보컴퓨터 사장

임신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시점이다. 신년벽두에 내걸었던 목표 달성을 위해 막바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전자산업관련 모든 종사자 여러분의 건승을 바라마지 않는다.

올 한해를 회고해 볼 때 전자업계, 특히 컴퓨터부문에 있어 상당한 시련과 어려움이 점철된 한해였다.

그동안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며 전자산업의 총아로 떠오르던 컴퓨터산업이 해외시장에서는 주요 수출국의 급격한 시장변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외 유수의 컴퓨터 관련 업체들도 올해 감량경영을 통한 수지개선을 위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가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산업민족주의는 독자적인 기술의 개발 없이는 국제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아픈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 주었다.

국내시장에서는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한 가격경쟁이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시중자금의 압박과 치열한 매출경쟁으로 다수의 전문업체 도산이라는 결과까지 낳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제품의

Life-Cycle은 더욱 짧아져 소비자층이 세분화되고 그만큼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 주어야 할 입장이다. 컴퓨터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건전한 정보문화의 확립이 불가피해진 것도 올해에 제기된 문제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업체의 책임있는 솔루션 제공과 사용자의 건전한 활용문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지적소유권을 인정하는 풍토가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제2 이동통신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그와 관련한 장비 및 기기의 국산화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기도 했다. 급속한 국내 기업환경 변화에 미처 대응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간 하드웨어적인 발전에 의존하던 산업이 통신 및 정보처리분야의 부가가치에 비중을 두게 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된 것도 올해의 두드러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해외 선진기술을 따라잡고 후발개도국과의 가격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업체들의 노력은 잠시도 게을리할 수 없는 과제였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겸허하게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것은 곧 이어질 내년도에 대

한 준비이기도 하다. 업계는 나름대로 해외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배양해 성장잠재력을 축적하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유통구조와 가격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시장개방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 국내 업체간 발전적인 기술제휴나 상호교류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업체만의 노력보다 효과적인 공동대응이 더욱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1~2년이 우리의 전자산업을 가늠하는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할 때 그 중요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시련이 가져다 주는 기회를 잘 이용할 때만이 한 단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 작금의 상황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되어진다. 지난 1년이 어려웠던만큼 다가오는 신년에 우리가 해결하고 풀어야 할 문제는 많다. 단기적인 처방이나 눈앞의 손익에 급급해서는 결코 안되며 보다 근원적인 정부차원의 전략 아래 모든 업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국가의 성쇠를 쥐고 있는 전자, 정보관련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기에 업계 전반에 걸친 대변자로서, 감시자로서 전자공업진흥회의 역할을 이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송구영신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신년을 준비합니다.